코오롱그룹, 현장 밀착경영 “몰두”

이웅열 회장, 빅스텝 2010 위해 현장경영 강행 ... R&D 집중투자도

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현장밀착 경영에 몰두하고 있다.

5월30일 코오롱그룹에 따르면, 이웅열 회장은 1월21일 코오롱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<빅 스텝 2010>을 발표한 이후 서울, 대구, 부산 등 전국의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거리로 1만1000km 이상에 달하는 현장 경영 강행군을 매달 2-3회씩 소화하고 있다.

이웅열 회장은 5월30일 과천 코오롱그룹 대회의장에서 주요 8개 계열사 사장단과 기술담당임원 및 연구개발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R&D 분야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.

회의에서 그룹 R&D 전략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논의한 뒤 연구 인프라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.

이웅열 회장은 기술전략회의가 끝난 뒤에는 신기술전시회에 참석해 주요 연구 아이টে을 점검하고 연구진을 격려하며 수처리용 분리막 등 친환경사업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김범수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6/01>